

박승 전 한은총재 김제 백석초에 5억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모교인 전북 김제 백석초등학교의 도서관 신축에 5억 원의 기부를 하고 있다.

박 전 총재는 지난날 31일 이 학교를 방문해 거액을 내놓고 학교 관계자들과 환담을 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실 한 칸 규모의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도서관 신축비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학교는 현재 총 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2층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1층에는 도서관과 박 전 총재 기념관이, 2층은 3D 영화관(80석 규모)이 각각 마련될 예정이다.

김용규 교장은 "도서관이 지어지면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맥지청소년 교육원 '흥진기 창조인상'



유민화재단은 제2회 흥진기 창조인상 수상자로 과학부문에 김은성 KAIST(39·물리학과) 부교수, 사회부문에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노성대·사진), 문화부문에 박종선(42) 가구디자인을 각각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상은 고(故) 유민 흥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고자 제정돼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된다. 시상식은 내달 2일 오후 3시 중앙일보 본사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조선대 중앙도서관 도서 무료 배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노상재·사진)은 기증받은 도서 중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한 도서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사와 국외도서 전시회를 5일부터 7일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세븐·빅뱅 '싱가포르 엔터테인먼트'상



세븐과 빅뱅이 지난 2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싱가포르 엔터테인먼트 어워드(SEA) 2011'에서 각각 수상했다.

세븐은 싱가포르 및 해외 전문가가 뽑은 '베스트 아시아 퍼포먼스(Best Asia Performance)'상을, 빅뱅은 인기투표와 전문가 선정 '모스트 파퓰러 코리아 아티스트(Most Popular Korea Artist)'상을 받았다.

"헌혈은 생명...건강한 나를 나뉘요"

599회 헌혈 '대한민국 헌혈왕' 손홍식 씨

"100회든 600회든 기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것이 숫자보다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헌혈은 생명을 예찬하는 일이다. 건강한 '나'를 나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라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헌혈을 할 때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타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손씨가 처음 자신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 5월 29일. 그 전까지 바늘이 너무 무서워 헌혈을 두려워하던 그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미뤘던 안 된다는 생각에 이날, 헌혈 버스에 올라탔다.

"그래도 바늘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10번째 헌혈을 할 때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서부터 헌혈이 내 몸에 맞는 옷처럼 익숙해져 버렸어요."

손씨가 처음 자신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 5월 29일. 그 전까지 바늘이 너무 무서워 헌혈을 두려워하던 그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미뤘던 안 된다는 생각에 이날, 헌혈 버스에 올라탔다.

손씨가 처음 자신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 5월 29일. 그 전까지 바늘이 너무 무서워 헌혈을 두려워하던 그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미뤘던 안 된다는 생각에 이날, 헌혈 버스에 올라탔다.

손씨가 처음 자신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 5월 29일. 그 전까지 바늘이 너무 무서워 헌혈을 두려워하던 그는 작은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미뤘던 안 된다는 생각에 이날, 헌혈 버스에 올라탔다.

그때부터 손씨는 2달에 한 번씩 헌혈의 집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헌혈을 하고 나면 뿌듯하고 행복했다. 1990년대 초반 성분헌혈 기법이 도입된 후부터는 성분헌혈을 시작했다. 비록 헌혈에 비해 시간은 2배 이상 걸리지만, 2주에 한 번씩 헌혈의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지난 2005년 통계청 보성사무소 소장으로 은퇴한 이후에는 헌혈운동에 더욱 앞장섰다. 봉사활동을 위해 카운셀링, 노인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취득했고 초·중·고등학교에 강연을 다니기도 했다. 건강유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금연은 물론 자전거를 두 마리 삼아 매일 10km를 운동했고 음식도 가리지 않았다.

이렇게 손씨가 지난 27년여 동안 나누어 준 혈액의 양은 약 30만cc. 이는 60kg 몸무게의 성인 60여 명의 몸속에 있는 혈액량과



맛먹는 수준이다. 손씨가 나누는 것은 혈액만이 아니었다. 지난 1994년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신장 한쪽을 선뜻 내었고, 지난 2002년에는 간암환자에게 간 절반을 기꺼이 내어주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 윤정희 佛 문화예술공로훈장

영화 '시(詩)'의 주연배우 윤정희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받는다.

2일 프랑스 문화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윤정희는 프랑스 영화계의 추천으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수여하는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수상자로 선정됐다.

슈발리에 훈장은 프랑스 정부가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 공헌을 세우고 문화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사에게 주는 상으로, 윤정희는 지난해 8월 프랑스에서 개봉된 '시'가 집중주목을 받으면서 영화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인정돼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년 전인 2001년에 윤정희의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이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같은 훈장을 받은 예술인 부부가 된다.



윤정희는 "프랑스 문화부가 제 영화 인생을 인정해줬다는 데 기쁨을 느낀다"면서 "특히 10년 전 남편이 받은 상을 이번에 받게 돼 더욱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윤정희는 "프랑스 문화부가 제 영화 인생을 인정해줬다는 데 기쁨을 느낀다"면서 "특히 10년 전 남편이 받은 상을 이번에 받게 돼 더욱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윤정희는 "프랑스 문화부가 제 영화 인생을 인정해줬다는 데 기쁨을 느낀다"면서 "특히 10년 전 남편이 받은 상을 이번에 받게 돼 더욱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허영호 독도-마라도-가거도 단독비행

산악인 허영호(57)씨가 3일 초경량 비행기로 국토의 동·남·서쪽 끝인 독도, 마라도, 가거도를 순회하는 1800km의 단독 비행에 성공했다.

허씨는 이날 오전 6시에 경량 비행기를 타고 제천시 모산동 비행장을 출발, 강원도 삼척을 경유 오전 8시 10분께 독도 상공에 도착했다.

허씨는 독도 주위를 15분간 순회하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설치된 플래카드(3*4m)를 촬영했으며 11시 40분께 마라도, 낮 12시 50분께 가거도(전남 신안군 흑산면)를 거쳐 오후 3시 52분께 제천비행장에 도착했다.

허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행기 위에서 독도를 내려다보니 감회가 더욱 새로웠다"면서 "경량 비행기로 독도를 순회한 두 번째 기록을 남겼으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을 더욱 확실하게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도쯤 왔을 때 비가와 기온이 내려갔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다"면서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평양을 왕복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허씨가 이번에 탑승한 경량항공기는 독일 CTLS사가 제작한 CTLS-HL 기종으로 최고중량 600kg에 날개길이 9.5m로 최고 시속 2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허씨는 2008년 4월과 9월 경량 비행기로 경기 여주에서 제주도를 왕복하는 1100km 단독비행과 서울-독도 간 700km 비행에 성공했다.

2011 광주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



'나눔'을 실천하고 '의지'를 다지는 '2011년 광주청소년자원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2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생촌동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광주 청소년봉사 동아리 44개팀과 탐입교사와 함께 일년 동안 나눔을 실천할 'Beautiful Class'로 선정된 14개 학급의 청소년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신 일씨구 학당', '말바우 아집' 진행자인 지정남씨가 '행복한 시작, 나눔'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눔소리'의 공연 등도 이어졌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벽화봉사활동, 장애인 시설 일손 돕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나눔을 실천하게 된다. 또 오는 9월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갖고, 올 하반기에는 평가회를 통해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게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병원 송은규원장 축하화분 팔아 이웃돕기



전남대병원 송은규(왼쪽에서 세번째) 원장은 지난 1일 취임 축하 화분을 팔아 기부했다.

목포대-금융보안연구원 IT 인력양성 협약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왼쪽)는 지난 1일 오후 대학 총장실에서 금융보안연구원(원장 광창규)과 IT 및 금융보안분야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 중 유학생 전통문화 체험



호남대 중국교류본부(본부장 이정림)는 지난 1일 오후 광산캠퍼스 교수세미나실에서 한국어 어학 연수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Advertisement for '생활게시판' (Life Noticeboard) and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Respectfully pray for the deceased's soul). Includes contact info for opinion@kwangju.co.kr and funeral notices for various families.